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란 기본적으로 종교 학교의 탈무드 토론에서 1:1 짝 토론으로 진행되는 학습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모든 학습 활동을 짝 토론으로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에 하브루타를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진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① 동기 하브루타, ② 짝 하브루타, ③ 모둠 하브루타, ④ 쉬우르의 순서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동기 하브루타

동기 하브루타는 각 활동을 시작할 때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하브루타이다.

이 과정은 교사가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하브루타이다. 활동 내용과 방법, 순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이해)을 묻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매번 활동마다 도입 단계부터 교사의 질문에 의해 토론이 시작된다.

짝 하브루타

짝 하브루타는 유아가 둘씩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짝 하브루타는 하브루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유아 교육에도 여러 형태의 토론식 수업이 있었지만 짝 토론이 거의 안 되었고, 모둠 토론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모둠 토론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열외되거나 소외되는 유아가 발생한다. 또한 모두가 토론에 참여한다 해도 두 명의 유아가 토론할 때 그 시간만큼 나머지 유아는 토론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에 비해 하브루타 수업에서의 짝 토론은 열외되거나 소외되는 유

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짝 토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토론 주도권의 반이 각각에게 있기 때문에 짝 하브루타는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자가 주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원이 홀수여서 짝을 지을 때 1명이 빠질 경우에는 교사가 짝을 해 주는 것보다 1개의 조를 3명으로 편성하고 교사는 짝 토론 진행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짝을 바꿔 3명인 조가 고루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더 좋은 방법은 짝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 1명을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보조 교사의 역할은 친구들의 짝 활동을 살펴보고 한 명이 지나치게 오래 말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말 등을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짝 토론은 반드시 유아 두 명이 마주보고 앉아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토론하며 가능한 한 몸짓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비난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며 혼자서만 말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짝 토론에서의 질문은 활동 주제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교사가 질문 하나씩을 말해 주고 유아들이 그 질문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이때 교사가 질문을 말해 준 후 유아들의 토론 시작과 종료는 종을 쳐서 통제한다. 즉, 종소리와 함께 토론을 시작하고 교사가 토론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점에 다시 종을 치면 토론을 마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의 본질이자 짝 토론의 교육적 핵심은 충분한 상상을 통한 다양한 생각과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고등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생각)은 없을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제시한 기본 질문을 토대로 하여 유아 스스로 생각해 내는 추가적 질문이 계속 생겨나서 사고가 확장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서로 눈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짝 토론에서 꼭 필요하다.

초등학교 이상 학령기 수업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토론을 어려워한다. 1대1로 하는 짝 토론은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질문과 자기 생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질문다운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과 자기 의견에 타당성이 충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감이 적다.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질문하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유아기의 특성이다. 따라서 유아기는 짝 하브루타를 효율적으로 체득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다.

하브루타에서는 질문이 토론의 시작이 되고, 토론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이므로 점차 유아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토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야 한다.



▲ 모둠 수업에서는 열외되는 사람이 생기기 쉽다.

모둠 하브루타

모둠 하브루타는 4~6명의 유아가 하나의 모둠이 되어 토론하고 활동하는 단계이다. 모둠 하브루타에서는 각각의 짝 하브루타에서 토론된 내용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짝 토론보다 사고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다. 모둠 토론에서도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길게 말하지 않고 모둠 구성원 모두가 고루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모둠 하브루타는 모둠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쉬우르



▲ 교사 위주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활동을 정리하도록 한다.

쉬우르는 교사가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 활동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때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 토론을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 활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다음의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첫째, 경청하기와 분명히 말하기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도록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핵심 사항 위주로 분명하게 말하도록 한다.

둘째, 의문 갖기와 집중하기이다.

의문 갖기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다. 집중하기는 토론의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지하기와 도전하기이다.

지지하기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도전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견해와 다를 때는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